

광양시사라실예술촌, 2025 생생국가유산사업

광양 국가유산 교재 '예술로 걷는 광양 국가유산길' 발간
지역 국가유산을 예술로 풀어낸 체험형 교육 콘텐츠 제작

광양시사라실예술촌(촌장 조주현)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 생생 국가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국가유산 교육 교재 '예술로 걷는 광양 국가유산길'을 발간했다.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국가유산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지역에 잠재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재창조하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이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는 광양의 역사와 문화, 예술적 가치를 담아 관내 초·중학생들이 지역 국가유산을 교육 과정과 연계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활동 및

구활동 등을 함께 구성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교재는 총 2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광양 국가유산 종목별 소개와 이를 활용하는 단체 정보를 담았으며, 2장에서는 각 국가유산 종목에 연계 가능한 문화예술 체험 콘텐츠를 체험활동과 구구활동 등으로 세분화해 학생들이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라실 예술촌은 2025년부터 광양 국가유산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여러 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자료를 취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교재를 발간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교 중심의 역사교육과 생활

문화 중심의 사회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교재는 관내 초·중학교에 배포를 완료했으며, 생생국가유산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인 '집수정에 담긴 햇살'을 통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가유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주현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장은 "올해는 국가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광양 지역 국가유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산 교육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미래 세대가 현재와 미래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재가 교육 현장에서 지역과 국가유산을 긴밀히 연결하는 실질적 매개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문화재단, '취향살롱' 공간운영자 모집

지역 소규모 공간 13개소 선정... 활동비 150만 원 지원

나주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 이하 재단)이 일상 공간을 기반으로 시민의 취향과 관계가 문화로 확장되는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조성에 나선다.

재단은 시민 주도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2026 나주형 커뮤니티 발굴 사업 '취향살롱'에 참여할 공간운영자를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취향살롱'은 생활권별 특색을 반영해 공동의 취향을 매개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문화 활동으로 확장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다.

특히 카페, 책방, 공방 등 일상 공간에서 운영자의 관심사와 개성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커뮤니티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모집 대상은 나주시 내 카페, 음식점, 책방, 공방, 스튜디오, 농장 등 소규모 상업 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및 민간 단체로 재단은 총 13개 커뮤니티를 선정해 각 공간에 커뮤니티 활동비 1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간운영자는 운영자의 취향을 기반으로 5-7회차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게 되며 재단은 역량 강화 워크숍과 참여자 네트워킹, 홍보 지원 등 성장 기반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권별 문화 수요를 발굴하고 연결해 권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문화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사업 설명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화기반조성팀(☎061-335-0969)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차세대 도예작가가 선택한 고흥, 2026년 입주작가 프로그램 본격 시작

국내외 유망 도예가 9명 참여... 세계 도예 교류 거점 성장 기반 마련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2026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입주작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장기 입주작가 1명과 단기 입주작가 8명 등 총 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장기 입주작가는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하며, 단기 입주작가는 분기별로 2명씩 순차적으로 참여해 1년간 프로그램이 이어간다.

참여 작가에게는 전용 작업공간과 고흥 분청사기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개방형 창작공간을 운영해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흥 지역 도예인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 작업과 협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작가의 전문성을 활용한 고흥군민 대상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입주 기간 종료 후에는 성과작품을 고흥군에 기증하고, 작업 과정 및 작품



공개를 통해 지역 도예 문화 활성화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단기 입주작가로 선정된 나도준 도예가는 도예고등학교와 중국 경덕진 도자대학교,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졸

업한 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입주 기간에는 고흥의 자연환경과 전통 도자 문화를 바탕으로 전통 도자의 조형미와 기법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

석하고,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 인간 존재와 시간의 의미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향후 미국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도예 작가들이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고흥을 중심으로 한 국제 도예 교류 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유망 도예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고흥을 찾으면서 고흥이 세계 도예 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작가들의 창작 지원과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흥분청사기'를 세계 도자 문화의 중심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하며, 귀성객과 지역 주민, 관광객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전통놀이 체험 한마당을 비롯해 ▲미니 전통 탈 열쇠고리(키링) ▲사방신 전통 딱지 ▲미니 연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연휴 기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순천문화재단, '향분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공연팀 모집

국악·양악·대중음악 등 5개 장르 총 100팀 선발

(재)순천문화재단은 오는 26일까지 '2026 향분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하 2026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공연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번째 진행되는 아고라 순천은 그동안 축적해 온 열린 무대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 공연 플랫폼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공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모는 사업 공고일 기준 순천시 거주 예술가(예술단체)로 해당 분야 전공자 등 공연 역량을 갖춘 개인 및 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5개 장르 ▲대중음악 ▲양악 ▲국악 ▲무용·댄스 ▲다원예술 26일 17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11팀 등 총 100팀을 선발한다.

이번 오디션은 통해 최종 선발된 공연팀은 4월부터 11월까지 순천시 곳곳에서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획 및 테마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순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순천문화재단으로 발송하거나 이메일(fcbfcb@cfsc.or.kr)로 26일 17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2026년 아고라 순천은 공연 운영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전문 예술과 생활예술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공연 수준을 높이고, 예술적 실험과 도전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